

抜刀隊



(玄脈文學 通권 227호 2009. 7. 25)

▷山仙士(ちゆざんせんし) / 주근옥 역

我ハ官軍我敵ハ 天地容れざる朝敵ぞ
敵の大將たる者ハ 古今無双の英雄で
之に從ふ兵ハ 共に標悍決死の士
鬼神に恥ぬ勇あるも 天の許さぬ叛逆を
起しゝ者ハ昔より 榮えし例あらざるぞ
敵の亡ぶる夫迄ハ 進めや進め諸共に
玉ちる 劔技き連れて 死ぬる覺悟で進むべし

皇國の風と武士の 其身を護る靈の
維新このかた磨れたる 日本刀の今更に
又世に出づる身の響 敵も身方も諸共に
刃の下に死ぬべきぞ 大和魂ある者の
死ぬべき時ハ今なるぞ 人に後れて恥かくな
敵の亡ぶる夫迄ハ 進めや進め諸共に
玉ちる 劔技き連れて 死ぬる覺悟で進むべし

首を望めバ劔なり 右も左りも皆劔
劔の山に登らんハ 未來の事と聞きつるに
此世に於てまのあたり 劔の山に登るのも
我身のなせる罪業を 滅す爲にあらずして
賊を征伐するが爲 劔の山もなんのその

敵の亡ぶる夫迄は 進めや進め諸共に
玉ちる 劔技き連れて 死ぬる覺悟で進むべし

劔の光ひらめくハ 雲間に見ゆる 簀妻か
四方に打出す砲聲ハ 天に轟く雷か
敵の刃に伏す者や 丸に碎けて玉の緒の
絶えて墓なく失する身の 屍ハ積みて山をなし
其血ハ流れて川をなす 死地に入るのも君が爲
敵の亡ぶる夫迄ハ 進めや進め諸共に
玉ちる 劔技き連れて 死ぬる覺悟で進むべし

彈丸雨飛の間にも 二ツなき身を惜まずに
進む我身ハ野嵐に 吹かれて消ゆる白露の
墓なき最後とぐるとも 忠義の爲に死ぬる身の
死て甲斐あるものならば 死ぬるも更に怨なし
我と思はん人たちハ 一步も後へ引くなかれ
敵の亡ぶる夫迄ハ 進めや進め諸共に
玉ちる 劔技き連れて 死ぬる覺悟で進むべし

我今茲に死ん身ハ 君の爲なり國の爲
捨つべきものハ命なり 仮令ひ屍ハ朽ちぬとも
忠義の爲に捨る身の 名ハ芳しく後の世に
永く伝へて甦るらん 武士と生れた甲斐もなく
義もなき犬と云はるゝな 卑怯者となそしられそ
敵の亡ぶる夫迄ハ 進めや進め諸共に
玉ちる 劔技き連れて 死ぬる覺悟で進むべし

ばっとうたい

ゝ山仙士(ちゆざんせんし, 外山正一, とやままさかず, 1848~1900)

われはかんぐんわがてきは てんちいれざるちょうてきぞ
てきたいしょうたるものは ここんむそうのえいゆうで
これにしたがうつわものは ともにひょうかんけっしのし

きしんにはじめゆうあるも てんのゆるさぬはんぎやくを
おこしものはむかしより さかえしためしあらざるぞ
てきのほろぶるそれまでは すすめやすすめもろともに
たまちるつるぎぬきつれて しぬるかくごですすむべし

みくにのふうともものふの そのみをまもるたましいの
いしんこのかたすたれたる につぼんとうのいまさらに
またよにいづるみのほまれ てきもみかたももろともに
やいばのしたにしぬべきぞ やまとたましいあるものの
しぬべきときはいまなるぞ ひとにおくれてはじかくな
てきのほろぶるそれまでは すすめやすすめもろともに
たまちるつるぎぬきつれて しぬるかくごですすむべし

くびをのぞめばつるぎなり みぎもひだりもみなつるぎ
つるぎのやまにのぼらんは みらいのこととききつるに
このよにおいてまのあたり つるぎのやまにのぼるのも
わがみのなせるざいごうを ほろぼすためにあらずして
ぞくをせいばつするがため つるぎのやまもなんのその
てきのほろぶるそれまでは すすめやすすめもろともに
たまちるつるぎぬきつれて しぬるかくごですすむべし

つるぎのひかりひらめくは くもまにみゆるいなずまか
よもにうちだすほうせいは あまにとどろくいかずちか
てきのやいばにふすものや たまにくだけてたまのおの
たえてはかなくうするみの かばねはつみてやまをなし
そのちはながれてかわをなす しちにいるものもきみがため
てきのほろぶるそれまでは すすめやすすめもろともに
たまちるつるぎぬきつれて しぬるかくごですすむべし

だんがんうひのあいだにも ふたつなきみをおしまずに
すすむわがみはのあらしに ふかれてきゆるしらつゆの
はかなきさいごをとぐるとも ちゅうぎのためにしするみの
ししてかいあるものなれば しぬるもさらにうらみなし
われとおもはんひとたちはいっぽもあとへひくなかれ
てきのほろぶるそれまでは すすめやすすめもろともに

たまちるつるぎぬきつれて しぬるかかごですすむべし

われいまここにしぬんみは きみのされなりくのために
すつべきものはいのちなり たとひしかばねはくちるとも
ちゅうぎのためにすてるみの なはこうばしくのちのよに
ながくつたへてのこるらん ふしとうまれたかいもなく
ぎもなきいぬといわるるな ひきょうものとなそしられそ
てきのほろぶるそれまでは すすめやすすめもろともに
たまちるつるぎぬきつれて しぬるかかごですすむべし

발도대(拔刀隊)¹⁾

▷ 山仙士(ちゆざんせんし, 外山正一, とやままさかず, 1848~1900, 철학자/교육자/시인)

주근옥 역

우리는 관군 우리의 적은 천지에 침범 못할 천황의 적
적의 대장이라고 하는 자는 고금무쌍의 영웅으로서
그를 따르는 병사들은 모두 날렵하고 사나우며 죽음을 각오한 무사
귀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용기가 있어도, 하늘이 용서하지 않는 반역을
일으키는 자는 옛날부터 영예를 얻은 예가 없는 것을
적이 죽는 그때까지 전진 또 전진 다 함께
빛나는 칼을 빼어 들고 죽을 각오로 전진해야만 하느니

황국의 모습과 무사는 그 몸을 수호하는 영혼이

유신 이래 쇠퇴하게 되었고, 일본도가 세삼

다시 세상에 나타나는 그 모습의 명예, 적도 아군도 모두 함께

1) 1. 최남선(崔南善)이 모방한 이 시는 外山正一(とやま まさかず)가 미국 유학 시 알게 된 남북전쟁 당시의 군가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 일본에 와있던 육군군악대 교관 프랑수아 샤를르 루르(Charles Edouard Gabriel Leroux, 1851. 9. 13~1926. 7. 4)에 의해 작곡돼, 일본 최초의 군가로서 폭발적으로 히트했다. 이곡은 「扶桑歌」 「分列行進曲」으로도 불리며, 구 육군으로부터 현재의 자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곡이다. 2. 발도대(拔刀隊): 사쓰마 번(薩摩藩)의 오오쿠보 토시미치(大久保利通, おおくぼ としみち), 죠주 번(長州藩)의 키도 타카요시(木下孝允, きど たかよし)와 메이지유신삼걸(明治維新三傑) 중의 한 사람이며,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사이고 타카모리(西郷隆盛, さいごう たかもり, 1827~1877)가 이끄는 무사집단과 정부군사이에 일어난 전쟁을 세이난전쟁(西南戦争, 明治10년[1877년] 3월4일~20일의 17일간)이라 하며, 이 전쟁에서 사이고의 사쓰마(薩摩) 지겐류(示現流) 용사들에 의해 정부군의 종포대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자 급히 조직한 검사 결사대이다. 나중에는 육군소로 개칭되었다가 폐지되었다. 사쓰마(薩摩) 지겐류(示現流)는 오직 일격필살만을 중시하는 검류로써, 일격에 적의 검을 파괴하고 적을 부수는 파워를 보여주며 猿叫 즉 원숭이의 절규를 모방한 “케이!(キェーイ!)” “체스토!(チェスト!)” 등의 독특한 기합이 중시되는 검파이다. 토고우 츠우이(東郷重位, とごう ちゅうい, 1561~1643)는 지겐류(示現流)의 개조(開祖)로도 유명하지만, 지겐류(示現流) 창시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노력과 열정도 대단하다. 지겐류(示現流)는 일본에서 최강으로 꼽히는 검술 중의 하나로, 사쓰마 번(薩摩藩, 오늘날의 가고시마)의 무사들만이 썼던 고류검술이다. 지겐류(示現流)와 사쓰마(薩摩)는 메이지 유신을 기점으로 한 근대화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역주)

칼날 아래 죽어야만 하는 것을, 일본정신이 있는 자의
죽어야만 하는 때는 지금인 것을, 남에게 뒤져서 창피를 당하지마라
적이 죽는 그때까지 전진 또 전진 다 함께
빛나는 칼을 빼어 들고 죽을 각오로 전진해야만 하느니

목을 원한다면 칼이로구나, 왼쪽도 오른쪽도 모두 칼
칼의 산에 오르는 것은 미래의 일이라고 들었었는데
이 세상에서 직접 칼의 산에 오르는 것도
내 몸에 저지른 죄업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을 정벌하기 위한 것, 칼의 산도 아무것도 아니야
적이 죽는 그때까지 전진 또 전진 다 함께
빛나는 칼을 빼어 들고 죽을 각오로 전진해야만 하느니

칼의 번뜩임은 구름 사이로 보이는 번개인가
사방에서 솟아오르는 포성은 하늘로 올려 퍼지는 천둥소리가
적의 칼날에 쓰러지는 자여 칼날에 부서져 목숨이
끊어지고 묘도 없이 죽는 몸의 시체는 싸여서 산이 되고
그 피는 흘러서 강물을 이룬다. 사지로 들어가는 것도 천황을 위해
적이 죽는 그때까지 전진 또 전진 다 함께
빛나는 칼을 빼어 들고 죽을 각오로 전진해야만 하느니

탄환이 비 오듯 쏟아지는 사이에서도 들도 없는 몸을 아낌없이
전진하는 이 몸은 폭풍에 휘몰려 사라지는 백로의
묘도 없는 최후를 마친다고 해도 충의를 위해 죽는 몸이
죽어서 보람 있는 것이 된다면 죽는 것도 결코 원한이 없어
내가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라
적이 죽는 그때까지 전진 또 전진 다 함께
빛나는 칼을 빼어 들고 죽을 각오로 전진해야만 하느니

지금 이곳에서 죽으려고 하는 몸은 천황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것
버려야 하는 것은 목숨이며 가령 시체는 썩을지라도
충의를 위해 죽는 몸의 이름은 향기롭게 후세에
오래도록 전해 남을 것이니, 무사로 태어난 보람도 없이
의리도 없는 개라고 일컬어지지 마라 비겁자로 비난 받지 마라
적이 죽는 그때까지 전진 또 전진 다 함께

빛나는 칼을 빼어 들고 죽을 각오로 전진해야만 하느니

ばっとうたい
抜刀隊

作詞：外山正一
作曲：シャルル・ルルー
明治18年(1885)

Tempo di marcia

われは かんぐん わがてき は てん ち いれざる ちょうてき せ
てき の たいしょうたるものは ここんむそうの えいゆうで
これ に したごう つわものは と もに ひょうかん けっしの し
きじん に はじめ ゆうある も てんの ゆるさめ はんざく き
おこせし ものは むかしより さかえし ためし あらざる せ
てきの ほろふる それまで は すずめ やす すめ もろともに
たまちる つるぎ めきつれて しする かくごで すすむべし

발도대(抜刀隊) 연주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2N1aG91DS64&mode=related&search=>